건강보험 조직 신설로 CSM 확대… '보험이익 회복' 과제

〈신계약 보험계약마진〉

정문철 KB라이프 사장
상품 다각화, 보험·투자손익 성장
올해 누적 수입보험료 3.8조 선방
CSM 4412억 전년대비 15% 늘어
보험영업손익 2013억 6.7% 줄어
예실차 95억 이익→364억 손실로



정문철 KB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KB라이프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이 취임 후 혁신상품본부를 신설해 건강보험 개발과 인수심사를 한 조직에 모으고, 연금 상품과 판매채널도 넓혔다. 올해 1~9월 수입보험료는 계획을 웃돌고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도 늘었지만, 보험영업손익은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

◆ 건강보험 키우고 종신·연금 강점 살린다

KB금융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당시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던 정 사장을 추천하면서 상품 다각화와 보험·투자손익의 균형 성장을 기대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해 올해 말 첫 임기가 끝나는 정 사장은 신년사에서 "채널과 상품이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기존 강점인 종신·연금보험의 시장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정 사장은 '내실 있는 확장'을 내걸고 경영 슬로건 '넥스트 이즈 나우(Next is Now)'에 이 같은 전략을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담았다.

건강보험은 KB라이프가 2024년부터 개척을 추진한 시장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에도 KB라이프 보험부채에서 사망·변액사망 담보 비중은 57.9%였다. 사망 담보는 낮은 손해율로 안정적인 이익을 뒷받침해 왔지만, 보장성보험 수요가 건강·상해보험으로 이동하면서 새 고객을 확보할 상품이 필요했다.

정 사장은 취임 첫해 신설한 혁신상품본부에 삼성화재에서 장기보험 상품을 개발한 한기혁 상무를 본부장으로 영입했다. 지난해 4월 첫 종합건강보험 'KB 딱좋은 요즘 건강보험'을 내놓은 뒤 유병자용과 온라인 상품으로 판매 대상을 넓혔다.

올해 3월에는 진단금 중심에서 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계약 유지율과 손해율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4월 출시한 간병보험에는 치매 신약 치료와 장기요양 보장을 담았다.

연금보험에서는 1월 장기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커지는 보증 구조를 적용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채널에선 지난해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B라이프파트너스에 200억원을 출자하고 외부 GA와 온라인 판매도 넓혔다.

정 사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시니어 사업은 1월 문을 연 KB라이프 역삼센터에서 보험과 은행, 요양 상담을 한곳에 모으는 방식으로 구체화했다.

◆ 예실차 악화에 보험손익 감소

KB라이프의 올해 1~9월 전사 수입보험료는 약 3조8000억원으로 회사 계획을 약 1730억원 웃돌았다. KB라이프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판매 확대를 배경으로 꼽았다. KB금융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3분기 경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계약 CSM은 44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1% 늘었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뜻한다.

같은 기간 개별 기준 보험영업손익은 20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7% 줄었다. 기존 계약의 CSM을 당기 이익으로 인식한 상각이익은 392억원 늘었으나, 실제 보험금·사업비 등이 예상과 달라 생긴 손익인 예실차는 95억원 이익에서 364억원 손실로 돌아섰다.

예실차 악화 폭 459억원이 상각이익 증가분을 넘어섰다. KB라이프는 교육세율 인상 등을 보험손익 감소 요인으로 설명했다.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등 일부 상품의 손해율과 해지율 상승도 보험손익에 부담이 됐다.

7~9월 보험영업손익은 737억원으로 2분기보다 123억원 늘었다. 개선분 중 95억원은 예실차 손실이 줄어든 데서 나왔다. 전사 손해율은 2분기 63.3%에서 3분기 72.5%로 높아졌다.

1~9월 투자영업손익은 채권·대체투자 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1452억원에서 644억원으로 55.6% 줄었다. 투자영업손익 감소 폭이 보험 부문보다 컸다. 누적 순이익은 2106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첫 임기에 상품과 판매 기반을 넓힌 정 사장에게는 신계약의 가치를 안정적인 보험이익으로 연결하고, 투자손익 변동을 줄여 두 부문의 이익을 함께 키우는 과제가 남았다.

KB라이프는 "CSM 확대를 통한 수익의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자산배분 다변화를 통해 수익기회 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정보유출 대응' 금융사 580곳 전수점검

금융위 '보안체계 혁신' 간담회
AI 해킹 사고 즉시 공유시스템 마련
내달 시범운영, 내년 1분기 전면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AI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1개월 동안 금융권 37개사에서 약 47만3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인공지능 시대 보안체계 혁신을 위한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원, 금보원, 국조실, 과기부, 행안부, 개보위, 방미통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 생보협, 손보협, 금투협, 저축은행중앙회, 여전협, DAXA 등 금융업권별 협회가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신고된 침해 사고는 총 40건으로, 37개 금융사에서 47만3000건의 정보유출이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 정보나 고객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회사 영업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이 대부분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침해 사고에 따른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핫월렛, 소비성 포인트, 온투업 예치금 등 회사에서 고객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 등에서 자금이체가 발생했고, 개별 이용자의 자금손실은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전 금융권 약 580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 외부 접점 시스템은 물론, 그간 관리가 소홀했을 수 있는 주변부 시스템과 보안 관리 전반의 내부통제 실태까지 빠짐없이 점검한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되는 AI 해킹 특성에 맞춰 개별 회사의 사고 내역을 즉시 공유하는 전파 시스템도 마련한다. 대형 금융회사는 탐지한 공격 방식, 공격자 IP, 악용된 취약점, 악성코드 정보 등을 통합관제시스템(FIRST)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해,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해당 방안은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분기 전면 도입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보안 규율도 강화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그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만 사고를 신고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고 발생 시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가상자산거래소 및 보험대리점(GA)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의 보안 규율을 적용하는 '디지털금융 안전법'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분양가 오르는데… 청약시장 '찬바람'

주택산업연구원, 분양 전망 '부정적'
서울 분양시장 전망 한달새 14.3p ⬇
대출규제 등에 자금조달 부담 영향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 전망이 한 달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분양전망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분양가격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분양물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 우려도 커졌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81.3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19~27일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분양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서울 분양 전망 한 달 만에 꺾여

서울은 지난달 105.7에서 이달 91.4로 14.3p 떨어졌다. 지난달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경기도 86.8에서 85.7로 1.1p 하락했다. 인천은 83.3에서 83.9로 0.6p 올랐으나 기준선과는 격차가 컸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92.0에서 87.0으로 5.0포인트 낮아졌다.

주산연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에 강남권 매매가격 약세가 겹치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라 90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주간 상승률은 0.16%, 0.13%, 0.09%로 2주 연속 축소됐다. 강남구(-0.38%)와 서초구(-0.35%), 송파구(-0.22%) 등 강남3구는 모두 하락했다.

전셋값 상승에도 매매거래는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7%로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았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915건으로 전월보다 14.7% 감소했다.

◆ 세종만 기준선 웃돌아

비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80.0으로 전월보다 0.2p 하락했지만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세종은 93.3에서 115.4로 22.1p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준선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달 1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주택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게 주산연의 설명이다.

경북도 76.5에서 100.0으로 23.5p 상승해 기준선에 도달했다. 충북은 81.8에서 90.0으로, 경남은 70.6에서 78.6으로 각각 8.2p, 8.0p 올랐다. 대전은 83.3에서 88.2로, 강원은 66.7에서 70.0으로 상승했다.

반면 전북은 84.6에서 60.0으로 24.6p 떨어져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전남도 76.9에서 60.0으로 16.9p 하락했다. 부산은 72.7에서 61.9로, 대구는 80.0에서 70.8로 각각 10.8p, 9.2p 낮아졌다. ▲광주(94.7→89.5) ▲충남(78.6→75.0) ▲제주(70.6→69.2) ▲울산(92.9→91.7)도 하락했다.

◆ 분양가 상승 전망 여전

분양시장 전망이 위축됐지만 분양가격 상승 예상은 여전히 우세했다. 이달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112.1로 전월보다 2.2p 낮아졌으나 기준선을 웃돌았다. 인건비 등 공사비 부담이 이어진 영향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9.48로 전년 동월보다 5.94% 상승했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7.1에서 90.9로 6.2p 하락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청약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9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25%p 오른 3.43%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lhj@

강남3구 하락에도… 서울 집값 91주 상승

부동산원, 전국 0.07% 수도권 0.13% ⬆

서울 집값이 91주 연속 올랐다. 다만 오름폭은 줄었고, 강북권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3구는 하락하면서 지역별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2일 기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91주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0.09%)보다 0.02%포인트(p) 낮아졌다. 전국 매매가격은 0.07%, 수도권은 0.13% 올랐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조정한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거래가 발생했지만 수요가 꾸준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역별로 오르고 내리는 단지가 섞인 가운데 서울 전체로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서대문구가 0.3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성북구 0.30% ▲중랑구 0.28% ▲강북구 0.2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0.39%)와 서초구(-0.37%), 송파구(-0.17%)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안상미 기자 smahn1@